

# 이것은 풍력 발전 단 지가 아닙니다

입찰을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



# 부풀린 약속 그리고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

## 완벽한 계획

2026년 중반까지 당국은 한국 시장에서 최대 8GW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경매에 부칠 계획입니다. 이는 국내 해상 풍력 역사에서 큰 이정표가 되며 풍력 발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더욱 야심 차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계획은 간단합니다. 개발업자가 입찰 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금융 조달 완료 및 기술 조달 등 개발 단계 과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일정에 맞춰 건설되어 수백만 가구에 깨끗하고 저렴한 친환경 전기를 공급할 것입니다.

### 하지만 계획만으로 풍력 발전 단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될 입찰은 환영할 만하지만, 계획된 2단계 접근 방식은 마지막 단계에서 여전히 가격이 주요 차별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가격 중심의

입찰로 인해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압박받는 비즈니스 사례는 프로젝트 경제성에도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급망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경매 시스템만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해상 풍력 발전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허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장기적인 투자를 집중하면 프로젝트가 제때에 건설되는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 계획부터 실행까지

좋은 소식은 입찰을 개혁하여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사례를 지원하면서 계획된 프로젝트가 실제 풍력 발전 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세스와 인프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다음 3단계에 집중함으로써 가능합니다.

## 1단계

# 해상 풍력 입찰의 조건 개선

가격에 심하게 집중하면 재정적 위험이 증가하여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 APAC 외 공급업체의 국제 실적, 초기 COD 일정 및 프로젝트 개발 성숙도에 대한 특정 점수를 추가하여 1단계 선정 점수를 50점에서 70점으로 올릴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2단계 가격 선정 시 점수가 50점에서 30점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기준별로 무엇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1단계의 정성적 기준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 2단계

# 효율적인 허가를 위한 법안 통과

현재 허가 절차는 29개의 법률과 10개 이상의 정부 기관을 거쳐야 하므로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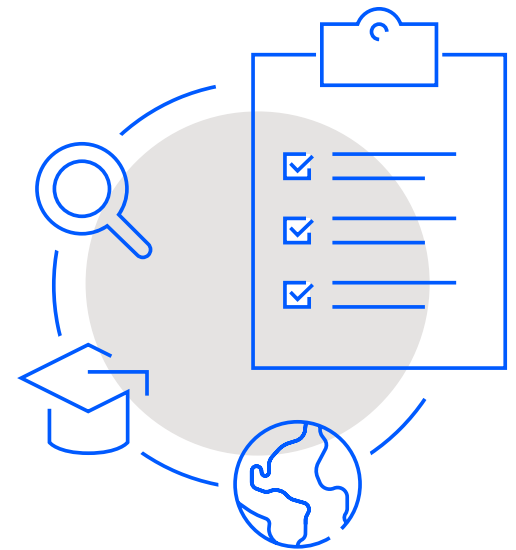
해결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발의는 업계에서 환영할 소식이었지만,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서 허가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빨리 통과될수록 업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풍력 프로젝트 허가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3단계

# 그리드 인프라에 투자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최적의 그리드 인프라가 없다면 풍력 발전의 전망은 암울합니다.

그리드 인프라에 대한 계획은 장기적인 투자 환경을 지원하고 풍력 산업에 필요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그리드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계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sup>1</sup> “해상 풍력 개발로 해안 재생을 지원하는 방법” 보고서, GWEC, 2024년 5 월

허가 절차와 그리드 인프라에 집중하면서 해상 풍력 입찰을 개혁하는 것은 2026년 중반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경매될 전례 없는 용량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실행으로 옮기세요

실행 방법은 [[vestas.com/KRaction](https://vestas.com/KRaction)]에서 확인하세요.